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153호 농업정보

주간 2017. 9. 18. - 9. 2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0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3~19도, 최고기온: 24~27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적겠음

0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 양파 가격전망 및 저장동향
- ▶ 대파 가격 및 생산전망
- ▶ 건고추 가격 및 생산전망

0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국산 호접란 미국 수출로 화훼업계 활로 모색한다

0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0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3

- ▶ 노지 단경기 재배에 적합한 연녹계 폐포계 애호박 품종
- ▶ 상부개방다겹보온커튼 + 축열식공기열히트펌프 패키지 기술의 난방연료비 절감효과
- ▶ 참다래(해선)
- ▶ 다기능 복합파종기 도입의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 효과
- ▶ 전남농기원, 추석 앞두고 고품질 햅쌀 본격 수확
- ▶ 전남 식용곤충산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껌질째 먹는 아삭한 국산 포도 홍주씨들리스
- ▶ 국산 지황 품종 우수성 평가로 보급 확대에 나서
- ▶ 잇꽃씨로 대장암 치료 효과 높인다
- ▶ 씨감자 하령, 저장온도 조절로 탄저병 막아요
- ▶ 다양한 색깔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선보여
- ▶ 어미돼지 너무 살찌지 않도록 관리해야 생산성 쑥

06 정책 동향 28

- ▶ 농산업 창업비용 지원해 안정적 정착 돕는다
- ▶ 담양 딸기 등 전남지역 특화 농산물 안전
- ▶ 농식품부,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인다
- ▶ 추석대비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0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광양시, 빛그린 광양매실 3년 연속 대상 수상
- ▶ 곡성군, 2016년산 백세미 판매완료 기념식
- ▶ 보성군, 축산물 이력제 및 식용란 판매 특별 단속
- ▶ 화순군, 식용곤충 요리교육 인기
- ▶ 영광군, 정보화마을 추석맞이 인터넷 특판행사 개최
- ▶ 장성군, 획기적인 양파 기계화 경영모델 개발

08 해외 농업정보 39

- ▶ 아프리카 맞춤형 양계 사양기술 찾는다
- ▶ 미국, 차세대 수퍼푸드로 주목받는 타이거넛츠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9. 18.(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4% 상승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1% 만큼 소폭 상승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8% 감소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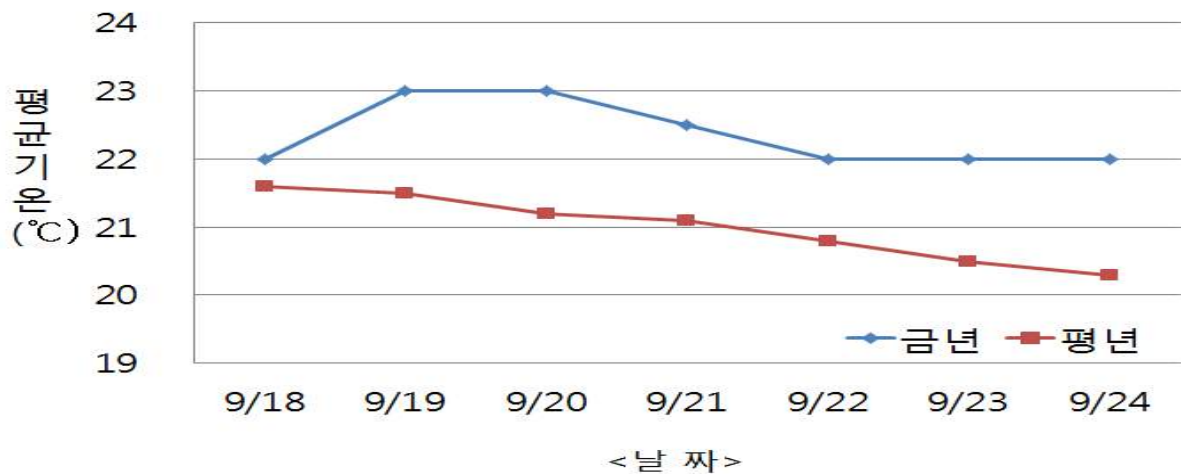
0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2

- ▶ 전남농기원, 귀농귀촌 과수교육 추진
- ▶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구축사업 신청하세요
- ▶ 발작물 경영체·종자산업 기반 확충한다
- ▶ 일반 민간종자도 국제기준의 검정 서비스 가능
- ▶ 농가에 머무르며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과 하나가 되다
- ▶ 밤이 길어지는 시기... 추분(秋分)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9월 18일~9월 24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2.4℃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27.1℃ (평년대비 0.8℃ 높음)
- 최저기온 : 17.6℃ (평년대비 1.0℃ 높음)
- 강 수 량 : 3.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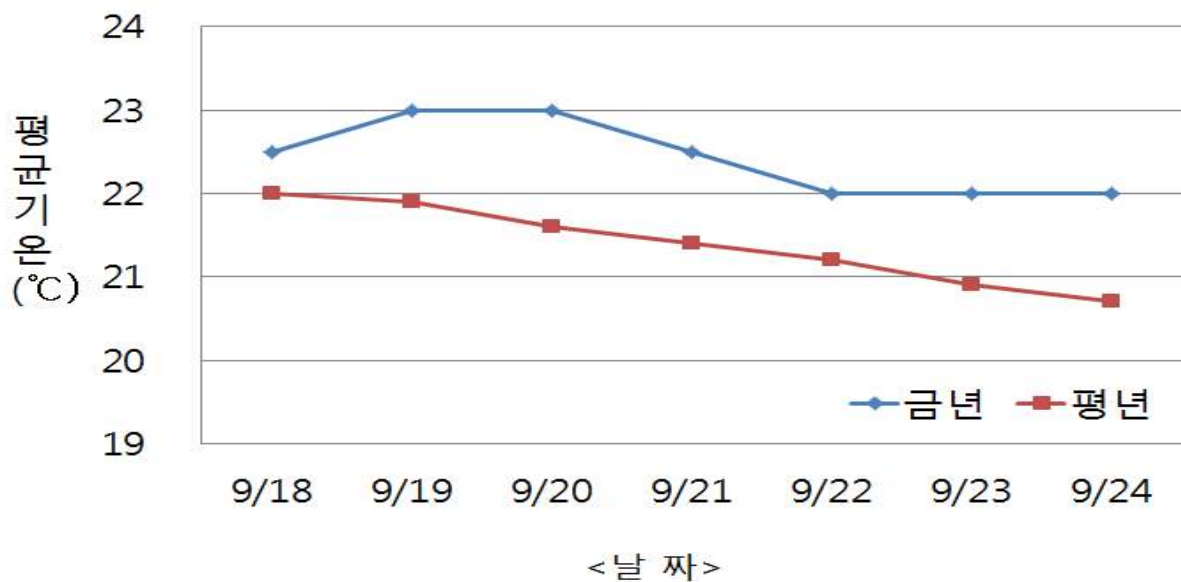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C) | | | 최고기온(°C) | | | 최저기온(°C)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22.4 | 21.0 | 1.4 | 27.1 | 26.3 | 0.8 | 17.6 | 16.6 | 1.0 | 3.8 |
| 9. 18.(월) | 22.0 | 21.6 | 0.4 | 27.0 | 26.9 | 0.1 | 17.0 | 17.3 | -0.3 | 4.4 |
| 9. 19.(화) | 23.0 | 21.5 | 1.5 | 27.0 | 26.8 | 0.2 | 19.0 | 17.2 | 1.8 | 4.2 |
| 9. 20.(수) | 23.0 | 21.2 | 1.8 | 28.0 | 26.6 | 1.4 | 18.0 | 16.8 | 1.2 | 4.0 |
| 9. 21.(목) | 22.5 | 21.1 | 1.4 | 27.0 | 26.4 | 0.6 | 18.0 | 16.6 | 1.4 | 4.0 |
| 9. 22.(금) | 22.0 | 20.8 | 1.2 | 27.0 | 26.0 | 1.0 | 17.0 | 16.5 | 0.5 | 4.2 |
| 9. 23.(토) | 22.0 | 20.5 | 1.5 | 27.0 | 25.8 | 1.2 | 17.0 | 16.2 | 0.8 | 3.4 |
| 9. 24.(일) | 22.0 | 20.3 | 1.7 | 27.0 | 25.8 | 1.2 | 17.0 | 15.7 | 1.3 | 2.7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9월 18일~9월 24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2.4℃ (평년대비 1.7℃ 높음)
- 최고기온 : 26.1℃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18.7℃ (평년대비 1.0℃ 높음)
- 강 수 량 : 4.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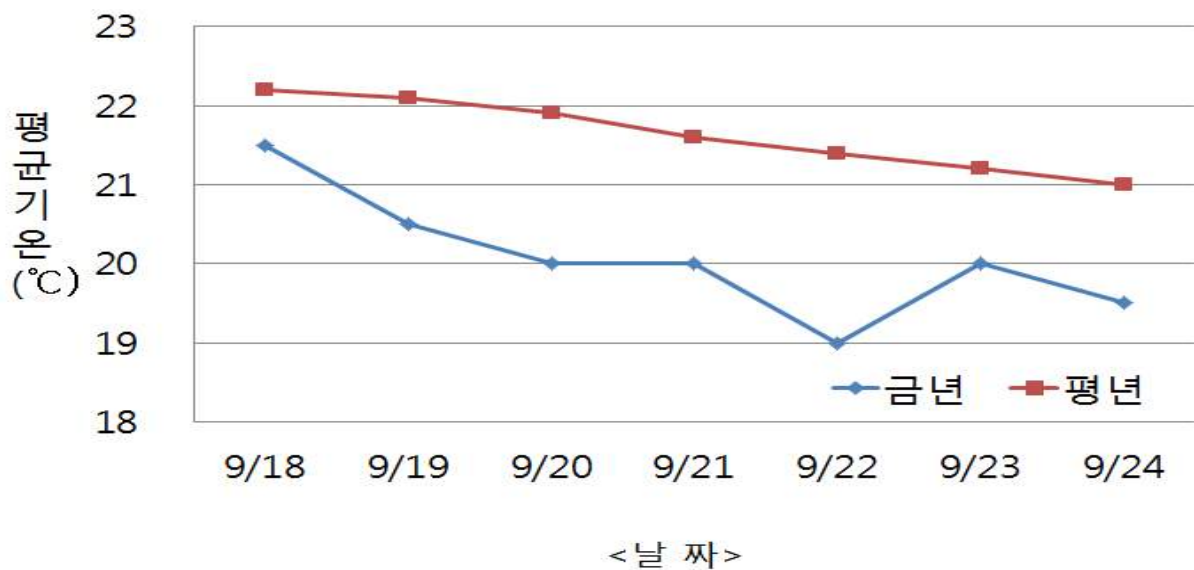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C) | | | 최고기온(°C) | | | 최저기온(°C)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22.4 | 21.4 | 1.7 | 26.1 | 26.2 | -0.1 | 18.7 | 17.7 | 1.0 | 4.2 |
| 9. 18.(월) | 22.5 | 22.0 | 5.0 | 26.0 | 26.8 | -0.8 | 19.0 | 18.4 | 0.6 | 5.6 |
| 9. 19.(화) | 23.0 | 21.9 | 1.1 | 26.0 | 26.7 | -0.7 | 20.0 | 18.2 | 1.8 | 4.9 |
| 9. 20.(수) | 23.0 | 21.6 | 1.4 | 27.0 | 26.5 | 0.5 | 19.0 | 17.9 | 1.1 | 4.5 |
| 9. 21.(목) | 22.5 | 21.4 | 1.1 | 26.0 | 26.2 | -0.2 | 19.0 | 17.7 | 1.3 | 4.6 |
| 9. 22.(금) | 22.0 | 21.2 | 0.8 | 26.0 | 26.0 | 0.0 | 18.0 | 17.5 | 0.5 | 4.3 |
| 9. 23.(토) | 22.0 | 20.9 | 1.1 | 26.0 | 25.8 | 0.2 | 18.0 | 17.2 | 0.8 | 3.0 |
| 9. 24.(일) | 22.0 | 20.7 | 1.3 | 26.0 | 25.7 | 0.3 | 18.0 | 16.9 | 1.1 | 2.2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9월 18일 ~ 9월 24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0.1℃ (평년대비 1.6℃ 낮음)
- 최고기온 : 19.7℃ (평년대비 5.3℃ 낮음)
- 최저기온 : 20.4℃ (평년대비 1.6℃ 높음)
- 강 수 량 : 3.9mm



| 일 별 (월 · 일) | 평균기온(℃) | | | 최고기온(℃) | | | 최저기온(℃) | | | 강수량(mm) |
|----------------|-----------|-----------|-------------|-----------|-----------|-------------|-----------|-----------|-------------|---------|
|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금년 (a) | 평년 (b) | 차이 (a-b) | 평년 |
| 평 균 | 20.1 | 21.6 | -1.6 | 19.7 | 25.1 | -5.3 | 20.4 | 18.8 | 1.6 | 3.9 |
| 9. 18.(월) | 21.5 | 22.2 | -0.7 | 20.0 | 25.7 | -5.7 | 23.0 | 19.3 | 3.7 | 3.6 |
| 9. 19.(화) | 20.5 | 22.1 | -1.6 | 20.0 | 25.5 | -5.5 | 21.0 | 19.2 | 1.8 | 3.5 |
| 9. 20.(수) | 20.0 | 21.9 | -1.9 | 20.0 | 25.3 | -5.3 | 20.0 | 19.0 | 1.0 | 3.0 |
| 9. 21.(목) | 20.0 | 21.6 | -1.6 | 20.0 | 25.1 | -5.1 | 20.0 | 18.8 | 1.2 | 3.2 |
| 9. 22.(금) | 19.0 | 21.4 | -2.4 | 19.0 | 24.7 | -5.7 | 19.0 | 18.7 | 0.3 | 5.3 |
| 9. 23.(토) | 20.0 | 21.2 | -1.2 | 20.0 | 24.6 | -4.6 | 20.0 | 18.5 | 1.5 | 4.8 |
| 9. 24.(일) | 19.5 | 21.0 | -1.5 | 19.0 | 24.5 | -5.5 | 20.0 | 18.3 | 1.7 | 3.8 |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가격전망 : 9월 가격 전월대비 보합세 전망

- 9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2017년산 입고량 증가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낮으나, 저장 및 가공비 상승으로 전월(kg당 6,320원) 대비 보합세로 전망된다.
- 난지형 마늘 9월 산지가격은 2017년산 저장·가공업체 입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8년산 재배의향 전년대비 감소

-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생산비 부담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한 약 24,600ha로 조사되었다.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7년보다 4~5% 감소한 23,700ha 내외로 추정된다.

양파 가격전망 및 저장동향

□ 가격전망 : 9월 가격 전월대비 보합세 전망

- 9월 양파 가격은 양파 재고량 감소와 입고가격 상승으로 전년 910원보다 높지만, 수입량 증가로 전월 1,210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장동향 : 2017년산 입고량 전년대비 13% 감소

- 2017년산 중만생종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3% 적은 55만 3천톤으로 추정되며,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850원 내외로 나타났다.
- 8월 말 기준, 출고량은 전년보다 17% 적은 3만톤으로 추정된다.

대파 가격 및 생산전망

□ 가격전망 : 9월 가격 전년 및 전월과 비슷할 전망

- 9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전년 및 전월과 비슷하나, 평년 보다는 높은 2,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이는 주산지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기상여건 악화로 단수가 감소하여 출하량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생산전망 : 9~11월 정식의향 전년대비 3% 감소 전망

- 9~11월 정식의향면적은 금년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출하기 가격 하락 우려로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고추 가격 및 생산전망

□ 가격전망 : 9월 도매가격 전월대비 강세 전망

- 9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으며, 전월 9,710원 대비 강세로 전망된다.
- 2017년산 햇건고추 출하량 감소 등에 따른 전체 공급량 축소 및 추석 전 소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생산전망 : 2017년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2017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전년산보다 12% 감소한 2만 8,329ha이다.
- 8월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탄저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한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등의 피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 2017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호접란 미국 수출로 화훼업계 활로 모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는 한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 분화(盆花)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미국은 2017. 9. 14일자로 분화상태의 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움 묘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방법령 개정안을 최종 공고하였으며, 10. 16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 이번 미국의 조치로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이 뿌리가 있는 분화상태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호접란·심비디움 재배 농가는 본격적인 미국 화훼시장 공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국산 호접란의 미국 시장 판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금번 공고 이후 후속조치로 미국(동식물검역청 APHIS)이 호접란·심비디움을 재배할 우리나라의 온실을 승인하고, 우리 검역당국의 입식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김영록 장관은 “미국 연방법령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우리나라 호접란·심비디움 분화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을 재배농가와 수출자에 적극 홍보하여 호접란 및 심비디움이 미국으로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9. 18. 기준/단위 : 원)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률(%) | |
|------|-----------|------------------|-----------|-------------|---------|---------|---------|----------|--------|
| | | 판매 단위 | 당일 (9/18) | 1주일전 (9/11)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식량작물 | 쌀(일반계) | 20kg | 33,920 | 32,820 | 32,600 | 34,000 | 41,367 | ↓ 0.2 | ↓ 18.0 |
| | 콩(백태) | 35kg | 172,600 | 171,800 | 171,800 | 152,000 | 163,133 | ↑ 13.6 | ↑ 5.8 |
| | 고구마(밤) | 10kg | 27,800 | 31,800 | 34,480 | 26,900 | 25,280 | ↑ 3.3 | ↑ 10.0 |
| | 감자(수미) | 20kg | 39,400 | 41,400 | 41,640 | 25,700 | 24,790 | ↑ 53.3 | ↑ 58.9 |
| 채소류 | 배추(고랭지) | 1kg | 1,740 | 1,840 | 1,630 | 2,100 | 1,119 | ↓ 17.1 | ↑ 55.5 |
| | 양배추 | 10kg | 11,800 | 11,200 | 12,160 | 9,700 | 7,993 | ↑ 21.6 | ↑ 47.6 |
| | 오이(다다기계통) | 10kg | 24,333 | 28,667 | 38,933 | 33,667 | 28,009 | ↓ 27.7 | ↓ 13.1 |
| | 애호박 | 20개 | 20,400 | 29,600 | 27,520 | 32,950 | 23,183 | ↓ 38.1 | ↓ 12.0 |
| | 건고추(화건) | 60kg | 1,320,000 | 1,200,000 | 686,640 | 642,500 | 798,000 | ↑ 105.4 | ↑ 65.4 |
| | 풋고추 | 10kg | 70,800 | 60,200 | 44,000 | 99,250 | 54,283 | ↓ 28.7 | ↑ 30.4 |
| | 마늘(깐마늘) | 20kg | 127,000 | 127,000 | 126,000 | 140,500 | 114,733 | ↓ 9.6 | ↑ 10.7 |
| | 양파 | 20kg | 25,600 | 25,800 | 26,040 | 18,350 | 19,410 | ↑ 39.5 | ↑ 31.9 |
| | 당근 | 20kg | 50,600 | 36,400 | 28,600 | 45,850 | 39,783 | ↑ 10.4 | ↑ 27.2 |
| | 대파 | 1kg | 2,200 | 2,340 | 2,328 | 2,420 | 2,014 | ↓ 9.1 | ↑ 9.2 |
| | 파프리카 | 5kg | 33,800 | 36,800 | 23,120 | 30,900 | 30,477 | ↑ 9.4 | ↑ 10.9 |
| | 토마토 | 10kg | 40,000 | 41,400 | 30,840 | 31,000 | 30,733 | ↑ 29.0 | ↑ 30.2 |
| | 방울토마토 | 5kg | 30,800 | 33,200 | 21,680 | 22,150 | 18,897 | ↑ 39.1 | ↑ 63.0 |
| | 사과(홍로) | 10kg | 35,400 | 35,600 | - | 41,150 | 41,166 | ↓ 14.0 | ↓ 14.0 |
| 과일류 | 배(원황) | 15kg | 36,800 | 40,200 | - | 34,100 | 37,435 | ↑ 7.9 | ↓ 1.7 |
| | 복숭아(백도) | 4.5kg | - | - | 18,440 | - | - | - | - |
| | 포도(캠벨얼리) | 5kg | 21,400 | 21,200 | 24,000 | 17,900 | 16,403 | ↑ 19.6 | ↑ 30.5 |

| 부류 | 품 목 |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 | | | | | 등 락 률(%) | |
|----------------|-----------|------------------|-----------|-------------|---------|---------|---------|----------|--------|
| | | 판매 단위 | 당일 (9/18) | 1주일전 (9/11) | 1개월전 | 1년전 | 일평년 | 전년 대비 | 평년 대비 |
| 특용 작물 | 참깨(백색) | 30kg | 518,600 | 516,600 | 516,600 | 546,000 | 547,667 | ↓ 5.0 | ↓ 5.3 |
| | 느타리버섯 | 2kg | 13,800 | 14,600 | 13,880 | 17,800 | 16,400 | ↓ 22.5 | ↓ 15.9 |
| | 새송이버섯 | 2kg | 8,600 | 8,800 | 8,280 | 9,400 | 9,173 | ↓ 8.5 | ↓ 6.2 |
| 축 산 물 (소매가) | 쇠고기(한우등심) | 100g | 8,246 | 8,168 | 7,975 | 8,039 | 7,091 | ↑ 2.6 | ↑ 16.3 |
| | 돼지고기(삼겹살) | 100g | 2,142 | 2,352 | 2,315 | 2,038 | 1,980 | ↑ 5.1 | ↑ 8.2 |
| | 닭고기 | 1kg | 4,909 | 5,059 | 5,180 | 5,220 | 5,214 | ↓ 6.0 | ↓ 5.8 |
| | 계란(특란) | 30개 | 5,503 | 5,727 | 7,434 | 5,651 | 5,701 | ↓ 2.6 | ↓ 3.5 |
| | 우유 | 1리터 | 2,527 | 2,527 | 2,527 | 2,551 | 2,532 | ↓ 0.9 | ↓ 0.2 |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9. 18. 기준)

| 구 분 | | 금주가격 | 전주가격 | 1년전 | 등 락 률(%) | |
|----------------|----|----------|----------|----------|----------|--------|
| | | | | | 전주 대비 | 전년 대비 |
| 큰 소 (600Kg) | 암 | 5,360 천원 | 5,245 천원 | 5,777 천원 | ↑ 2.2 | ↓ 7.2 |
| | 거세 | 6,639 " | 6,622 " | 7,136 " | ↑ 0.3 | ↓ 7.0 |
| 송아지 (6~7월) | 암 | 3,028 " | 3,017 " | 2,939 " | ↑ 0.4 | ↑ 3.0 |
| | 수 | 3,856 " | 3,912 " | 3,850 " | ↓ 1.4 | ↑ 0.2 |
| 육우(600Kg) | | 2,886 " | 2,822 " | 3,203 " | ↑ 2.3 | ↓ 9.9 |
| 돼지(110kg) | | 439 " | 452 " | 400 " | ↓ 2.9 | ↑ 9.8 |
| 육계(원/kg) | | 1,090 원 | 1,153 원 | 1,628 원 | ↓ 5.5 | ↓ 33.0 |
| 계란(원/특란10개) | | 1,203 " | 1,217 " | 1,298 " | ↓ 1.2 | ↓ 7.3 |
| 생체오리(원/kg) | | 2,667 " | 2,667 " | 1,667 " | - 0.0 | ↑ 60.0 |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노지 단경기 재배에 적합한 연녹계 폐포계 애호박 품종

□ 배경 및 필요성

- 고온기 안정생산이 가능한 노지 지주재배가 가능해 유인 등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폐포계 애호박 품종 보급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정식시기 : 8월 중순
- 추천품종 : 이스말리아
- 기 비 : 퇴비 1,500kg N 20-P 13.3-K 32.6kg/10a
- 재식간격 : 180×40cm
- 착과방법 : 벌(양봉) 2통/10a, 토마토톤 60배 희석
- 추 비 : N 20-P 10-K 30 주 1회 2kg/10a

□ 기대 및 파급효과

- 덩굴형 애호박과 달리 덩시설이 불필요하고 지주재배만으로 가능해 농가 생산비 절감 10% 가능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손동모, 김성준

■ 상부개방다접보온커튼 + 축열식공기열히트펌프 패키지 기술의 난방연료비 절감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단편적 에너지절감 기술의 패키지화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 상부개방형 다접보온커튼 채택으로 관행 보온커튼 대비 생산성 향상 도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단동비닐하우스 보온재 개선
 - 권취식 다접보온커튼(관행) → 상부개방형 다접보온커튼(개선)
- 난방시설 개선
 - 수막 + 등유보일러(관행) → 축열식 공기열히트펌프(20kw, 30톤)

□ 기대 및 파급효과

- 개발 패키지 기술을 활용할 경우 관행 대비 채광율 12%, 생산성 7% 향상, 난방비용 59% 절감
- 유류 및 전기사용량(2016년 2~3월)

| 적용기술 | 전기사용량 (kw/10a) | 유류사용량 (L/10a) | 에너지비용 (원/10a) | 비용절감효과 (%) |
|-----------------------------|-------------------|------------------|------------------|---------------|
| 상부개방형다접보온커튼 + 축열식공기열히트펌프 | 5,966 | - | 256,538 | 59 |
| 권취식다접보온커튼 + 수막 + 등유온수보일러 | - | 779 | 623,200 | - |

※ 유류비(2015년 1~2월 평균 가격) : 1L당 650원 적용

전력단가(농업용) : kw당 43원 적용, 조사기간 : 2016. 1. 1.~3. 30.(3개월)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손동모, 김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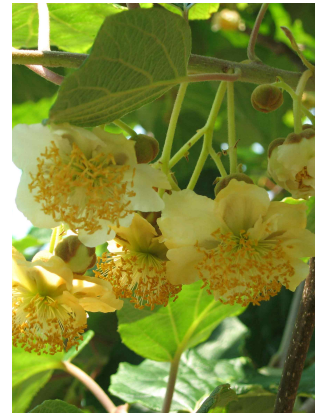
■ 참다래 (해선)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그린키위에 사용되는 참다래 수분수 『마쉴아·취프텐』은 개화기가 5월 중·하순으로 골드키위보다 늦어 조기 개화 품종 육성이 필요함

□ 품종 주요특성

- 수세가 강하고 개화기가 5월 중순임
- 화방당 개화량이 평균 5개로 많음
- 노지 중생종 골드키위 인공수분에 사용 가능함
- 비가림재배 시 개화기는 5월초로 앞당길 수 있음



【해선 품종 사진】

【대조품종 : 취프텐】

□ 재배상 유의점

- 수세가 강하므로 인공수분 후 강전정 실시
- 여름전정 후 상향지는 수평으로 결속하여 개화를 촉진
- 조기 채화를 위한 비가림재배 시에는 3월부터 비가림을 하고 한낮 고온 시에 30도가 넘지 않도록 환기에 유의

□ 기대 및 파급효과

- 참다래 주요 재배 지역 희망 농가 수분수 보급
- 수입 참다래 꽃가루 대체 효과 연간 20억 수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혜성, 조운섭, 박문영

■ 다기능 복합과종기 도입의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맥주보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도입이 필요함
- 맥주보리 다기능 복합과종기 도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는 미흡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다기능 복합과종기 도입의 생산비 절감 효과

(기준 : 원, %)

| 구 분 | 관 행(A) | 다기능 복합 과종기(B) | 증감율 (B/A) |
|------------|---------|---------------|-----------|
| 수량(kg/10a) | 441 | 441 | 0.0 |
| 1kg당 생산비 | 820 | 768 | △6.3 |
| 10a당 생산비 | 361,643 | 338,826 | △6.3 |
| 10a당 경영비 | 186,137 | 172,797 | △7.2 |

- 다기능 복합과종기 도입의 경제적 효과

| 작목 | 다기능 복합 과종기 도입면적 | 인력대체 | 기대효과(백만원) | | |
|------|-----------------------|------|-----------|------------|-----------|
| | | | 경영비 절감 | 농가소득 향상 | 생산비 절감 |
| 맥주보리 | 9ha | 9명 | 1.2 | 1.2 | 2.1 |

□ 기대 및 파급효과

- 총노동 투입시간은 8.7시간 → 7.9시간으로 9.2% 감소
- kg당 생산비 820원 → 768원 6.6% 감소
- 10a 소득 241,633원 → 254,973원으로 5.5% 증가
-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로 활용
- 맥주보리 재배단지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조동호, 박신, 김덕현

■ 전남농기원, 추석 앞두고 고품질 햅쌀 본격 수확

- 지금 들녘에는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농업인의 땀과 희망으로 정성스럽게 가꾸어낸 조생종 벼가 황금빛깔로 익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
- 금년 전남지역의 조생종 벼 조기재배 면적은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 161천ha 중 7.6%인 12,307ha이며,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2016년 14,249ha 보다 1,932ha(13% 감)로 면적이 줄어들었다.
- 전라남도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 등 기상재해 경감과 햅쌀 시장 고객 확보를 통한 고품질 전남 쌀의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생종 벼 조기재배』를 추진해 왔다.
- 금년에는 특히 태풍피해 경감 등 지속적인 대책으로 태풍피해가 많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생종 벼 조기재배를 확대 추진 하였으며 윤광벼·조평벼·조명1호 등 고품질 품종이 재배되었다.
- 금년 조생종 벼의 작황은 봄철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 폭염이 지속 되었으나, 물 관리 등 정밀관리로 수량은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9월 중순까지 순조롭게 수확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석 전에 밥맛 좋은 햅쌀 59천여톤이 생산·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정찬수 기술보급과장은 “금년 햅쌀은 현재 쌀 수급 상황과 추석이 2016년 보다 늦은 점을 감안할 때 햅쌀가격이 2016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추석 전에 조기재배 한 고품질 전남햅쌀이 소비자에게 전량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기 수확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수확 후에는 다음 작물로 지역에 따라 조사료, 시금치 등 소득작물과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농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식용곤충산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곤충잡업연구소 · 장성농업기술센터 · (주)케일 식용곤충연구소와 상생협력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잡업연구소는 9월 13일 장성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식용곤충산업 확산을 위해 식용곤충 이용 산업화 기술을 보유한 (주)케일 식용곤충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곤충잡업연구소에서 체결한 주요 협약 내용은 △전라남도 식용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식용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식용곤충의 기능성을 이용한 제품개발과 산업화, △식용곤충의 저변확대, 인식개선 홍보 마케팅 공동 협력, △전남지역 식용곤충 미각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다.
- 이번 업무 협약은 (주)케일이 식용곤충 전문식당인 『빠빠용의 키친』을 운영하면서 곤충이 첨가된 라이스크로켓·디아망쿠키·프로틴쉐이크·아미노스위트에너지바·프로틴더블초코 등을 생산 판매하는 식용곤충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식용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 전남 식용곤충산업의 차별화와 표준화,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곤충잡업연구소 구희연 박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식용곤충의 성분분석, 단백질 추출 및 가공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고, 고품질의 식용곤충 제품을 공동 개발하여 곤충 사육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껍질째 먹는 아삭한 국산 포도 홍주씨들리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껍질째 먹는 씨 없고 아삭한 포도 『홍주씨들리스』 품종을 평가하는 자리를 1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가졌다.
- 이 자리에는 포도 재배 농업인, 종묘업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홍주씨들리스 품종의 특성과 재배 시 유의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열매 품질과 나무 생육 상태를 평가했다.
- 포도 홍주씨들리스는 9월 중순에 익는 씨 없는 품종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포도 알 무게는 6g으로 큰 편이다.
- 홍주씨들리스 품종은 수입산 빨간 포도인 『크림슨씨들레스』와 비교 시 당도(18.3°Brix)는 비슷하지만 산 함량(0.62%)이 높아 새콤달콤하며 은은한 머스캇 향이 난다.
- 2016년 전문가 대상 평가회에서 홍주씨들리스는 씨가 없고 과육이 아삭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 평가 받았다.
-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개화기에 결실이 잘 되고, 수확기에 과실 터짐(열과) 발생이 적어 생산자가 원하는 특성도 고루 갖춘 품종이라는 평을 받았다.
- 더불어, 홍주씨들리스는 포도 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저장성이 좋아 수출유망 품종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 홍주씨들리스는 현재 19개 묘목업체에서 증식하고 있으며 올해 봄부터 묘목을 판매 중에 있다.
- 캠벨얼리 재배 주산지인 경북 상주시에서는 캠벨얼리 품종을 대체해 홍주씨들리스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2~3년 후에 시장에서 홍주씨들리스 포도를 만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지황 품종 우수성 평가로 보급 확대에 나서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황 품종 『다강·원강』의 보급 확대를 위해 15일 전북 정읍시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하였다.
- 전국 지황재배 농가와 지황 가공업체 등 생산, 가공 및 유통 관련자가 참석해 지황 품종 및 재배특성 등을 평가하고, 숙지황·경옥고 등 지황 가공 상품전시를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소개와 상품 용도별 가공적성 조건에 대해 재배농가와 상호 정보교류를 한다.
- 평가받는 지황 새 품종 『다강·원강』은 재래종에 비해 충해와 뿌리썩음병에 강하고 시들음병에도 비교적 강한 특징이 있다.
- 『다강·원강』의 뿌리는 각각 가는 방추형과 방추형으로 건조하고 찌서 말리는 가공용으로 용이하다. 특히 두 품종의 수량은 10a당 2,008kg과 1,825kg으로 재래종보다 14~5%가 많다.
- 이들 『다강·원강』 품종은 2015년부터 농가 시범재배를 실시했으며, 증식하고 있는 우량 종근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지 황 다강 품종】



【지 황 원강 품종】

■ 잇꽃씨로 대장암 치료 효과 높인다

- 동물실험 결과, 항암제와 잇꽃씨 함께 투여하면 항암 활성↑, 신장 손상↑ -

- 약용작물인 잇꽃(홍화)씨가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돼 앞으로 대장암 치료 보조제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약용작물인 잇꽃(홍화)씨가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임이 입증돼 앞 항암제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플라틴은 대장암을 비롯해 다양한 고형암의 암세포 증식을 막고 크기를 줄이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신장을 손상시키는 부작용도 따른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잇꽃씨 추출물이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시스플라틴)의 항암활성을 높이고 부작용인 신장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
- 동물실험은 총 7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 * 7그룹 : 정상군, 대장암 세포 이식 대조군, 대장암 세포 이식 후 잇꽃씨 추출물 100mg 또는 200mg 투여군, 대장암 세포 이식 후 항암제 시스플라틴 5mg 투여군, 대장암 세포 이식 후 항암제 시스플라틴 + 잇꽃씨 추출물 100mg 또는 200mg 투여군
- 실험결과,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율은 대장암 이식 실험동물에게 잇꽃씨 추출물 100mg 투여 시 40%, 200mg 투여 시 42%로 나타났다.
- 항암제 단독 투여 시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율은 51%로 나타났다지만, 잇꽃씨 추출물 100mg 또는 200mg을 항암제와 함께 투여 시 각각 67%, 73%로 항암활성이 증대됐다.
- 또한 항암제와 잇꽃씨 추출물을 함께 투여 시 대장암 세포를 없애는 효과도 높았다.

- 대장암 세포사멸 촉진율은 항암제 단독 투여군과 비교해 항암제 + 잇꽃씨 추출물 100mg 투여군에서는 9% 증가, 항암제 + 잇꽃씨 추출물 200mg 투여군에서는 20%까지 상승했다.
- 잇꽃씨의 항암제로 인한 급성 신장손상 억제효과는 신장손상의 지표항목인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로 확인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되면 혈액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한다.
- 항암제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교 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38% 증가했다. 항암제와 잇꽃씨 추출물 100mg 또는 200mg을 같이 투여하면 항암제 단독 투여 시보다 크레아티닌 농도가 각각 11%, 16% 감소됐다.
-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됐다. 향후 인체적용시험 등 추가시험을 거쳐 잇꽃씨 추출물을 대장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잇꽃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원재료로 등록돼 있어 부작용이 없는 소재이며 앞으로 산업화로의 이용이 확대된다면 재배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잇꽃 식물체(홍화)】



【잇꽃의 종실(홍화자)】



【잇꽃의 꽃(홍화)】

■ 씨감자 하령, 저장온도 조절로 탄저병 막아요

- 일평균 0.1~0.2℃ 낮추는 변온저장으로 탄저병 발생률 뚝↓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본격적인 고랭지 씨감자 수확시기를 앞두고 변온저장으로 『하령』의 탄저병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우리나라 감자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랭지 씨감자는 초가을에 수확해 저장고에서 5~6개월 저장한 다음, 이듬해 농가에 봄 감자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 하령은 수량이 많고 저농약 재배가 가능하며 맛이 좋은 품종이다. 그러나 고랭지에서 수확한 후에 아물이 처리(큐어링)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저온고습한 조건에서 저장하면 병이 잘 발생한다.
- 탄저병이 발생한 씨감자는 표면이 진한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함몰되고 껍질 안쪽의 조직이 괴사돼 씨감자 공급에 지장을 준다.
- 고랭지에서 수확한 씨감자 하령의 저장 실험 결과, 아물이 처리 후 저장 시, 저장고 온도를 서서히 낮춰주면 탄저병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령을 저온저장고에 바로 보관했을 때는 병 발생률이 14~30% 였으나, 1~2개월에 걸쳐 매일 0.1~0.2℃씩 단계적으로 목표 저온까지 낮추었을 때는 발생률이 낮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장동철 연구사는 “탄저병에 약한 하령과 같은 품종은 수확 후 올바른 아물이 처리와 단계적 변온저장을 함으로써 탄저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며, “역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으며 맛이 좋은 하령의 건강한 씨감자 생산 및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다양한 색깔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선보여

- 새로운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이 개발돼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는다. 글라디올러스는 주로 꺾은 꽃(절화) 형태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교회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과 새로운 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5일 충남 태안군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하였다.
- 평가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글라디올러스 10품종과 새로 육성한 10계통이 소개되었다.
- 새로운 계통은 여름철 장마와 더위에 강하고, 작은 꽃이 많이 달리는 등 우수한 계통들이다. 또한 연한 녹색의 시원한 느낌, 경조사용 화환에 쓰이는 분홍색 등 새로운 계통의 글라디올러스도 선보였다.
- 『원교 C2-157』 계통은 꽃잎 끝이 연분홍에서 연두색 복색이다. 중생종으로 작은 꽃수가 많으며 꽃대 휨 증상이 없고 구근 증식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 네덜란드 품종 분홍색 『스픽앤스판』 대체 품종인 『핑크벨로체』는 중대형 중생종으로 최근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국산 품종으로 자리 잡은 흰색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품종 등도 볼 수 있다.
- 국산 글라디올러스 재배면적은 17.1ha로,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8년 3%에서 2016년 29%까지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에서는 도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3품종을 개발했다.

- 2006년부터는 국산 품종을 농업기술센터나 영농조합 등에 매각해 글라디올러스 알뿌리(구근) 증식 및 절화 재배 단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 화훼산업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 금산 농가 등에서는 다양한 꽃 색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수출을 시도 중에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화분용 및 정원용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평가회에선 가정에서 글라디올러스 꽃꽂이 즐기는 팁 등을 소개하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화이트앵쿨



핑크러브



카디날



애드립샬먼



핑크벨로체



원교C2-153



원교C2-154



원교C2-157



원교C2-158



원교C2-160

■ 어미돼지 너무 살찌지 않도록 관리해야 생산성 쑥

- 1일 체중증가량 600g, 첫 교배 245일령 전후 알맞아 -
- 돼지 생산성을 높이려면 후보(어미)돼지의 『체중증가량』과 『첫 교배시기』부터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 어미돼지의 능력개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다산성 후보돼지의 적정 사양방법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후보돼지의 알맞은 증체량(체중증가량)과 교배일령을 밝히기 위해 2015년부터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했다.
- 국내 돼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에도 농가 수준에 따라 돼지 생산성 차이가 크다. 어미 1마리가 1년에 낳아 기르는 새끼 수(한돈팜스 양돈 전산프로그램 이용 농가)를 보면, 상·하위 농가 간에 10마리 차이가 난다. 따라서 표준화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 연구진은 후보(어미)돼지의 체중증가량과 첫 교배일령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돼지 160마리를 각각 증체량 3처리와 교배일령 4처리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 그 결과, 1일 체중증가량을 600g으로 유지한 경우, 대조구(720g 이상)보다 총 새끼수가 0.8마리 많았고, 젖 떼 새끼 수는 1.3마리 많았다.
- 또한, 교배일령을 245일령 전후로 조절한 경우, 대조구(230일 미만)보다 총 새끼 수는 1.4마리, 젖 떼 새끼 수는 0.6마리 많았다.

- 총 새끼와 젖 뎌 새끼를 1마리 더 생산한다는 것은 어미 1마리가 1년에 출하하는 돼지(MSY)가 2마리 정도 많다는 것으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된다.
- 어미돼지로 사용할 후보 돼지는 체중이 90kg인 150일령에 농장에 들어게(입식) 되는데, 첫 교배는 성숙이 알맞게 이뤄지는 체중 150kg에 실시한다. 농가에 들어올 때부터 첫 교배까지 60kg을 살찌워야 하므로, 첫 교배일령은 245일령 전후가 알맞다.
- 또한, 이에 맞춰 후보돼지의 1일 체중증가량을 600g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살찌지 않도록 후보돼지 사료 (조단백질 15%, 라이신 0.76%로 체평점을 고려해 1마리당 1일 2.4~2.8kg씩 제한해 먹인다.
- 또한, 어미돼지의 생산성과 연산성에 중요한 요인인 등지방은 마지막 늑골 지점을 직접 측정해, 교배 전 15mm 내외, 분만 직전에는 이보다 4mm 더 두껍도록 관리해 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어미돼지 사육 모습】

6 정책 동향

◆ 농산업 창업비용 지원해 안정적 정착 돕는다

- 전남도, 올해 3억 들여 30명 육성 예정... 10월 13일까지 접수 -
- 전라남도는 영농 신규로 진입 및 영농 초기의 청년농에게 창업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3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만 18~40세의 신규 및 영농경력 3년 이내 영농 창업자로서 상근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청년(예비)농이다. 사업기간 내에 농업으로 전업할 도민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고, 대상자별로 1천만원 한도에서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비,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기자재 구입비 등 영농 분야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사업 참여를 바라는 청년(예비)농은 거주하고 있거나 이전 예정인 읍면동에 10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군 심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8년 3월 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 완료 후 3년간 도내에서 영농을 이행해야 한다.

* 출처 : 전라남도

◆ 담양 딸기 등 전남지역 특화 농산물 안전

-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중금속 등 조사 결과 -

- 전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협업해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역 특화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검사는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일환으로 3월부터 이뤄졌다.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유통 농산물 검사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중 수확 시기와 생산량 등을 고려해 지역 특화 농산물로 선정했다.
- 주요 조사 농산물은 담양 딸기, 구례 오이, 영암 무화과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에서 생산·출하되는 농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송병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특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인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복지증대 및 쌀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일부(14% 수준)만 복지용 쌀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

- 신청 절차 개선
 - 현행 직접 신청 외에 유선 신청,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
- 수요자 맞춤형 공급
 - 현행 10, 20kg 포장 외에 소포장(5kg) 및 현미 시범공급 실시
 - 기초보장시설 및 무료급식시설의 공급 기준량 확대
- 품질 제고
 - 복지용 쌀은 특등벼를 우선 가공하여 공급
- 인지도 제고
 -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복지용 쌀 지원 현황, 품질 고급화 노력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 제고 대책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뿐만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대비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수요가 많은 성수품 공급 확대, 알뜰 소비정보 제공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8월 하순까지 지속된 잦은 비 등으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최근까지 비교적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채소류 등의 출하가 정상을 찾아 가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태풍 등 이상기상이 없을 경우 추석명절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의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 먼저, 배추·무는 현재 출하물량의 생육이 양호하고, 출하지역도 확대될 전망으로 성수기 원활한 공급이 예상된다.
- 사과·배는 금년 추석이 늦어 명절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축산물은 한우(2,655천마리)와 돼지(10,432) 사육마릿수가 각각 전년대비 1.4%, 0.7% 증가하여 추석수요 증가에도 수급안정이 전망되고, 계란공급량은 평년(4,000만개/일) 대비 95% 수준(3,800)이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격 하락세, 9월 중순 이후 점차 소비회복 전망된다.
- 밤·대추는 금년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 전망이고 명절기간 공급물량(산림조합)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수품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추석 전 성수품 등의 가격동향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전국 19개 지역 45개 시장·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수품(8부류 28품목), 선물세트(6부류 7품목) 등의 가격을 조사하여 2회(9. 21., 9. 28.) 공표(www.kamis.co.kr - 성수품 정보)한다.
-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전에 단계별로 원산지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9. 6.~10. 2.)도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성수품, 농식품 선물세트 등 구매편의 지원을 위해 직거래장터·특판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직거래장터·특판장은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 장터 422개소를 비롯 농·임협 특판장 2,122개 등 총 2,544개소를 9. 11일부터 추석 전까지 운영한다.
- 직거래장터와 더불어 공영 TV홈쇼핑, 대형 온라인 쇼핑몰(네이버·CJ·11번가 등) 등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성수품·선물용품을 할인 공급한다.
- 추석대비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17. 9. 11.~9. 29일까지(3주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품목별 공급 상황·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수급안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 성수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선물로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광양시, 빛그린 광양매실 3년 연속 대상 수상

- 고품질 매실생산 재배기술 보급과 확대 등으로 소비자 신뢰 이끌어 내 -

- 광양시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 『빛그린 광양매실』이 『2017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의 지역특산물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그동안 시는 매실산업 활성화와 고품질 광양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배기술 보급과 지원 확대, 가공제품 개발, 유통 및 가공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광양매실축제로 확대해 개최했다.
- 또 매실 기능성 연구에서 당뇨병자에게는 금기시 됐던 매실청을 음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리스테리아균·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등 식중독 유발 미생물 5종을 99.9% 저해하는 효과를 밝혀내기도 했다.
- 특히, 올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학교급식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실초콜릿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매실소비 저변 확대에도 힘써오고 있다.
- 시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농협양재유통센터 특선판매장에서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복장터』 운영을 비롯해 TV 프로그램과 CF 등을 제작하는 등 광양매실의 명성과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2016년산 백세미 판매완료 기념식

-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석곡농협(조합장 김재경)은 9월 13일 석곡농협 잡곡센터에서 재배농가 등 100여명이 참여해 『2016년산 백세미 판매완료 기념행사와 목사동면 평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골든퀸 수확 시연회』를 가졌다.
- 석곡농협에서는 특허 등록된 골든퀸3호 품종을 16년에 농가와 첫 계약재배를 실시해 그해 101농가 84ha에서 생산된 500톤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보다 3천원을 더 주고 매입해 쌀값이 하락한 시점에서 농가들에게 큰 소득원이 됐다.
- 이번 기념식은 쌀값이 폭락한 시기에 1kg에 5천원의 높은 가격으로 첫 판매를 시작해 판매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매입한 500톤을 모두 판매 완료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 올해도 석곡농협에서는 전국 최고의 쌀 생산을 181농가 158ha에 대해 계약재배를 하고, 종자공급부터 재배, 수확, 건조까지 전 과정을 농협에서 책임관리 하고 있다. 또한 재배과정과 유통현장 견학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스스로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 자긍심을 키우는 일에도 주력해 왔다.
- 석곡농협에서는 추석 선물용으로 고향의 정을 함께 선물할 수 있는 백세미 선물세트 (4kg, 6kg, 8kg)와 잡곡세트 (수퍼자미(검정)·슈퍼홍미·콩·찹쌀·현미·수수·조)을 준비하고 있으며 석곡농협(☎061-362-3042)에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 출처 : 곡성군

■ 보성군, 축산물 이력제 및 식용란 판매 특별 단속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9월 29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및 식용란 판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아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 군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 주요 점검사항은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기록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식용란 표시 기준 및 부적합 계란 보관, 판매 여부 등이다.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식용곤충 요리교육 인기

- 식량 대체자원 식용곤충 14종 요리 강좌 개설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식량 대체자원인 식용곤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변화와 소비확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식용곤충 요리 교육』의 반응이 뜨겁다.
-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식용곤충 요리교육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와 고소애·꽃벙이를 주재료로 한 고소애 꽃벙이 멸치볶음 등 14종의 농촌진흥청 개발메뉴 실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난달 18일부터 6일까지 교육희망자 접수결과 계획 인원 20명을 뛰어넘는 38명이 접수하는 등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는데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 영양가 높고 고소한 맛을 내는 갈색거저리 유충(고소애)을 비롯한 누에번데기·벼메뚜기·백강잠·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벙이)·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쌍별 귀뚜라미(쌍별이)로 총 7종이 국내 식품 원료로 정식 등재됐다.
- 세계식량농업기구는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40억명을 넘어 식량을 감당 못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화순군은 식용곤충이 유일한 미래식량 자원인 식용곤충의 산업화와 요리개발에 나서고 있다.
- 식용곤충 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hwasun.go.kr>)를 참고하거나 생활자원팀 (379-54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화순군

■ 영광군, 정보화마을 추석맞이 인터넷 특판행사 개최

- 영광군 정보화마을에서는 추석을 맞아 지역특산품을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인터넷판매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화마을은 영광군에 법성굴비마을과 군남용암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 법성 굴비마을(<http://gulbi.invil.org>)은 굴비의 원산지라는 자부심으로 최신 굴비 생산 유통시설을 갖추고, 이번 추석을 맞아 3~8만원까지의 다양한 굴비 선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 영광의 천일염으로 간을 한 영광 법성포 굴비는 예나 지금이나 추석맞이 최고의 선물로 인기가 높다.
- 군남 용암마을(<http://yongam.invil.org>)에서 판매하는 영광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모싯잎 송편은 서해안의 갯바람에서 자란 모싯잎과 영광산 쌀로 빚어 더욱 깊은 맛을 자랑한다.
- 특히 칼슘·철·마그네슘·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식품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품가격은 20개 들이 한 박스가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 이번 정보화마을 인터넷판매 특별전 행사는 9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올해 추석선물은 영광 정보화마을에서 풍성하고 알뜰하게 준비하길 권해본다

* 출처 : 영광군

■ 장성군, 획기적인 양파 기계화 경영모델 개발

- 2018년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
- 9월 12일 전남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18 농·축산물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양파 농작업 기계화 모델을 선보인 장성군 북일양파작목반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라남도 12개 농업 단체가 참여해 1차 서류 및 현지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단체가 입상했다.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북일양파작목반은 수상 인센티브로 2018년에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 북일양파작목반은 『양파 생력재배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모델 개발』을 주제로 관행농법에 소요되던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소개했다.
- 특히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업 단계별로 생산비 절감 기술을 적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종 시 플러그묘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자연분해비닐을 사용해 제초와 비닐제거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대부분의 농작업은 기계를 이용해 실시하고, 농약살포도 드론 공동방제 기술을 적용했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아프리카 맞춤형 양계 사양기술 찾는다

- 12~15일, 카파시(KAFACI) 중소가축, 사양기술 공동연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의체(이하 카파시(KAFACI)), 에티오피아농업연구청(EIAR)과 공동으로 『중소가축 사양기술 개발과 적용 공동연수(워크숍)』를 12일부터 15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했다.
- 카파시(KAFACI) 축산 프로그램 가운데 『상업화를 지향하는 소농들의 양계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역적응 사양기술 개발과 보급』의 2단계 사업으로써, 양계(닭 기르기)로 아프리카 소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15개의 참여국이 그동안 추진한 현황을 점검하고 각 나라의 정보를 공유하며 아프리카 양계 사양기술 현장 적용 모델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이에 앞서 2016년 회원국의 양계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여 각 나라 실정에 맞도록 양계사양지침(매뉴얼)을 제작했으며, 농촌진흥청은 이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 각 나라에 배부한 바 있다.
- 아울러, 올해 초부터는 이 지침에서 제시한 사양기술에 따라 각 나라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등 일반 관리를 받은 닭을 농가에 보급해 달걀 판매 수익을 얻고 있다.
- 앞으로 각국 연구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농가들이 소득의 일부를 따로 적립해 병아리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미국, 차세대 수퍼푸드로 주목받는 타이거넛츠

- 『타이거넛츠(tiger nuts)』가 미국 식품시장의 차세대 수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다.
- 견과류 같은 모양으로 타이거넛츠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식물의 덩이줄기(tubers)로 땅속줄기가 덩어리지면서 굽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또는 스페인에서 주로 재배되며 스페인에서는 『추파』로 불리며 스페인의 국민음료인 『오르차타』(horchata)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다.
- 크리미하고 특유의 단맛을 함유하고 있는데, 때문에 견과류처럼 그 자체로 스낵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컵에 단백질 6g, 섬유소 2g이 포함돼 영양학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홍보가 잘 이뤄진다면, 우유와 음료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아몬드나 코코넛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 식재료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들은 이미 발빠르게 타이거넛츠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 아직 많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이거넛츠는 생소한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타이거넛츠가 건강을 추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를 선호하는 최근의 식품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지는 차세대 수퍼푸드라고 조언한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9. 18.(시카고 선물거래소)

□ 한 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시세차익 거래로 하락한 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시황(▲1.4%)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4% 상승하였다. 환매와 함께 호주에서의 건조하고 서리에 대한 잠재적인 날씨에 대한 우려가 밀 선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1%)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1% 만큼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의 상승세는 곧 다가오는 미 중서부에서의 풍부한 수확에 대한 기대로 제한되었다.

○ 대두 선물시장 시황(▼0.8%)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한 달 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거래자들의 시세차익 거래로 인해 전일대비 0.8% 감소하였다. 대두 11월물은 한 주간 0.7% 상승하며 주를 마감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농기원, 귀농귀촌 과수교육 추진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귀농귀촌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원내 교육관에서 귀농귀촌 과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은 연간 10개 과정의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며 본 교육은 8번째 과정으로 귀농정책 및 변화하는 농업·농촌에 대해 소개하고 과수분야 동향 및 재배관리 등 이론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해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 2016년 전남 귀농귀촌인구는 29,367명(귀농 1,937명, 귀촌 27,430명)이며 도농기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연간 9,000여명을 귀농귀촌 교육하고 있다.
- 농업교육과 박경곤 과장은 “귀농귀촌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귀농귀촌인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싶은 농업인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구축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도, 농식품 가공·유통·체험 등 시설 지원... 22일까지 접수 -

- 전라남도는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에게 농식품 가공·유통·체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6차산업 인증을 바라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0억원(도 30, 시군 30, 자부담 40%)의 사업비로 10개소에 6차산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와 6차산업 인증을 바라는 만 18~39세의 청년농업인으로, 6차산업 미인증 청년농업인은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통해 6차산업 창업교육 등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사업 참여를 바라는 청년농업인은 해당 시군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시군 추천과 도 사업심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5억원 한도에서 6차산업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HACCP시설, 체험시설, 유통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청년농업인이 농업(1차)과 식품 제조가공(2차)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3차)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이 지역단위 6차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발작물 경영체·종자산업 기반 확충한다

- 전남도, 2018년 지원사업 신청 받아 -

- 전라남도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발작물 공동경영체와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2018년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이는 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케팅이 어려운 발작물에 대해 재배 농가의 조직화 및 마케팅 능력을 갖춘 경영체와 규모화된 고품질 농산물 종자 생산조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이 가운데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발작물 재배와 유통을 담당하는 영농법인이나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교육컨설팅,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관리 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이나 농협조직이 오는 10월 1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농산물 종자업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조직에 품목에 따라 최고 30억원을 지원해 온실, 저온 저장고와 종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농업기술센터와 생산자단체가 9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은 발작물의 마케팅 능력 향상과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보급해 농업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농법인이나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일반 민간종자도 국제기준의 검정 서비스 가능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법 개정[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조항 신설]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는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 종자검정 대상식물은 목초 51, 식량 8, 두류 18, 소콩류 27, 채소 72, 화훼 193종 및 기타 농작물 13종 등 7품목 382종,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 국립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종자검정 연구센터)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 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민원신청시스템(구축 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종자검정 수수료는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의 경우 건당 8,600원이고 발아율은 건당 30,800원, 수분은 건당 12,000원이며,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 lhjid@korea.kr)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에 머무르며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과 하나가 되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전국 5개 시군과 함께 농촌지역 체류형·체험형 농촌관광 『농촌 愛 올래』 상품을 출시·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역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유명 관광지 탐방은 물론, 여행객이 농가에 직접 머무르며 농가 주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농촌과 하나가 되어 정도 느낄 수 있는 지역 단위 여행상품이다.
- 이 상품은 마을단위 및 개별농가 등 소규모 단위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네트워크하고 지역 내 유명 관광 자원과도 연계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올해는 사업 첫해로 상반기 공모를 통해 전국 5개 시군 상품을 선정하였고 9월부터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상품이니 만큼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농촌 愛 올래 지역별 상품 신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지역단위 체류형 농촌여행 상품을 만나 보실 수 있다.

| 연번 | 지역 | 상품명 | 문의처 |
|----|--------|-----------------|--------------|
| 1 | 강원 양구군 | 배꼽 잡는 양구 농촌체험여행 | 033-480-2610 |
| 2 | 전북 남원시 | 팍투어 남원 누비GO | 063-620-6397 |
| 3 | 전북 순창군 | 순창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 063-650-5455 |
| 4 | 전남 강진군 | 감성1번지, 강진 푸소체험 | 061-430-3312 |
| 5 | 경북 고령군 | 통통한 고령 농촌체험여행 | 054-950-6663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밤이 길어지는 시기... 추분(秋分)

- 24절기 중 열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백로(白露)와 한로(寒露) 사이에 있는 절기로 추분(秋分)은 양력 9월 23일 무렵으로, 음력으로는 대개 8월에 든다.
-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한다. 곧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 추분과 춘분은 모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지만 기온을 비교해 보면 추분이 약 10도 정도가 높다. 이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추분에는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그 밖에도 잡다한 가을걷이 일이 있다. 호박고지·박고지·깻잎·고구마순도 이맘때 거두고 산채를 말려 묵나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 뿐만 아니라 추분에는 국가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등재되었다.
- 추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해 농사를 점치는 풍속이 있다.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해 대풍이 든다고 생각한다. 만약 추분이 사일(社日) 앞에 있으면 쌀이 귀하고 뒤에 있으면 풍년이 든다고 생각한다. 또 작은 비가 내리면 길하고 낭이 개면 흉년이라고 믿는다.

- 추분에 관련된 속담으로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는 추분부터 완전한 가을로 접어들어 여름에 잦던 천둥이 그치고, 벌레들은 이에 따라 땅의 입구를 막아 작게 만들어 추위를 예방한다는 뜻이다.
-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는 겨우내 추웠던 날씨는 춘분이 지나면서 비로소 따뜻해지고, 추분에는 여름 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게 됩니다. 춘분과 추분을 추위와 더위가 변화하는 경계로 일컫던 속담이다.
- 추분에 먹는 음식으로 버섯은 백로가 지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맘 때 채취된 버섯은 향과 맛이 뛰어나고, 비타민D가 풍부하며 강한 햇빛에 말린 버섯을 먹으면 비타민 섭취에 더욱 좋다고 한다.
- 또한 품질 좋은 햅쌀로 지은 밥은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구수하고 달달한 맛을 내고, 여기에 새로 수확한 잡곡을 섞거나 밤과 같은 제철 견과를 함께 넣고 지어 먹으면 맛과 영양이 더욱 좋아진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153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